

0세 부모 月 100만원 지원... 통합돌봄·농업직불금 확대

광주시 새해부터 달라지는 시책

광주시는 "2024년에는 복지·돌봄, 여성·보육, 경제·일자리, 청소년·청년 등 7개 분야 총 54개의 제도와 시책이 새롭게 시행되거나 달라진다"고 1일 밝혔다.

분야별 달라지는 주요 제도와 시책을 보면, 복지·돌봄 분야는 광주다움 통합돌봄 서비스 지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에서 90% 이하로 완화·확대한다. 또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심서비스를 확대 구축한다. 홀로 사는 독거노인과 장애인 가정에 화재, 질병 등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게이트웨이, 화재감지기 등 ICT 장비를 8578가구가 지원·설치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 기준을 완화하고, 경로당 냉·난방비,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주거급여 등을 확

7개 분야 54개 시책...통합돌봄 지원 중위소득 85%→90%로 완화 난임시술비 소득 관계없이 지급...노인 일자리·청년 구직 활동 장려

대 지원한다. 최종장애인 대소변 흡수용품 지원, 찾아가는 일상생활 전문가 교육·상담 등 복지·돌봄을 위한 지원 사업도 새롭게 시행한다.

여성·보육 분야에선 만 2세 미만 아동 보육을 위한 부모급여 지원금을 인상한다. 기존 70만원(0세), 35만원(1세) 지급됐던 부모급여가 각각 100만원(0세), 50만원(1세)으로 확대 지원한다.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에겐 기존 8000원씩 지원됐던 결식아동 급식 지원금을 9000원으로 인상한다.

건강·의료 분야는 유치원·어린이집 인근 반경 10m 이내로 지정됐던 금연구역이 유치원·어린이집·초·중·고 인근 반경 30m 이내 구역으로 확대 지정

한 점이 가장 눈에 띈다.

난임시술비 지원 제도도 확대 시행된다. 시는 그동안 거주 중위소득 180% 이하 난임진단자를 대상으로 1회당 최저 20만원에서 최대 110만원까지 지급했던 난임시술비를,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광주 시 거주 난임진단자라면 누구나 지원하기로 했다. 또 정신건강 고·중위험군 대상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 광주시 동물보호소에서 보호하고 있는 유기동물 입양 1년간 전액 지원하는 '안심 펫 보험 지원 사업'이 새롭게 시행된다.

경제·일자리 분야에선 노인일자리와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확대한다.

지원 대상은 2만8240명에서 3만2370명으로 늘어나며, 일자리 유형에 따라 수당을 월 29만~63만 4000원까지 인상한다.

농업인 소농직불금은 12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전략작물직불금은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한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도 기업당 100억원에서 200억원까지 확대한다.

청소년·청년 분야는 학교밖 청소년의 직업훈련 기관 훈련비(월 30만원·12개월)를 지원하고,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문화체험 등을 위한 교육진로활동비를 분기별 9~12세 10만원, 13~18세 15만원을 지급한다.

또 미취업 청년의 구직 활동에 필요한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 응시료 지원 시범 대상에 국가공인자격증 95종 필기·실기 종류를 추가

해 20만원 한도(1인 1회) 내 구직 청년들을 대상으로 자격증 응시료 지원금을 지급한다.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수당도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한다.

교통·환경 분야는 무인공유자전거 '타랑개'의 운영시간을 새벽 5시부터 밤 12시까지 확대하고, 1시간 동안 무료로 대여해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일반행정 분야에선 전세사기피해자의 월세·이사비 및 전세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또 최대 월 30만원(12개월)의 민간임대주택 임차료와 긴급주거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를 대상으로 최대 100만원까지 이사비를 지원하며, 전세보증금 대출 이자를 최대 2년동안 전액 지급한다.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은 기존 연 세액의 7% 범위에서 5% 범위로 축소한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청룡의 기운으로 파이팅~" 2024년 새해 첫날을 맞은 1일,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 민주의 종각 일원에서 열린 송신년 타종식 행사를 찾은 시민들이 민주의 종 타종에 맞춰 환호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청룡의 해' 용 관련 지명 전남도, 전국 최다 보유

광양 용머리공원 등 310곳

순천 용도마을, 광양 용머리공원, 영암 용반마을 등 전남에 용과 관련된 지명이 310곳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 1261곳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수치로, 전국 최다이다.

전남도는 2024년 갑진년 청룡의 해를 맞아 지역 용 관련 지명을 조사해 310개의 지명을 찾아냈다.

전남 22개 시·군 중에서 순천시가 34개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해남, 영암, 무안, 나주 순이었다.

십이지 중 진(辰)은 유일하게 상상 속 동물인 비와 구름을 관장하는 용(龍)로 다산과 농경 사회의 중요한 상징으로 여겨졌다. 특히 청룡은 힘과 행운, 번영을 상징. 황제와 지배층 등 왕실 예복에 자주 새겨졌다.

용과 관련된 지명은 주로 용 모양이나 승천하는 전설과 관련된 지명이 많다.

용 머리를 닮았다는 순천 주암면 용두마을, 광양 용머리공원, 마을 뒷산의 형태가 용 꼬리를 닮았다는 영암 금정면 용반마을, 용이 승천하는 모습을 닮았다는 담양 등용동, 화순의 용강마을, 장흥 소용동마을 등이 있다.

전남도청도 다섯 마리의 용이 구슬을 다루고 있는 형국인 오룡산 자락에 위치해 있다.

용 지명은 산이나 골짜기 등 자연 지명보다는 마을 이름과 관련된 경우가 많다. 마을 명을 짓거나 부를 때 용의 기운과 행운을 바라는 마음이 간절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청룡과 관련된 보성의 상청룡 마을은 800여 년 전 마을 앞 면에서 청룡이 승천했다고 전해진다. 무안의 청룡마을은 마을 산에 청룡형의 명당자리가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일본 7.6 강진...이시카와현 5m 쓰나미

1995년 한신대지진 보다 큰 규모...북부 연안 경보 발령

새해 첫날인 1일 일본에서 강진이 발생했다. 일본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10분께 일본 이시카와현 노토(能登) 반도 지역에서 추정 규모 최대 7.6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번 지진은 2011년 3월 11일 동일본대지진 때의 9.0보다는 작지만 1995년 1월 17일의 한신대지진(7.3)보다는 큰 규모다.

일본 기상청은 이시카와현뿐만 아니라 야마가타, 니가타, 도야마, 후쿠이, 효고현 등 동해쪽을 접한 일본 북부 연안에 쓰나미 경보도 발령했다. 이시카와현에는 이미 높이 5m의 쓰나미가 발생했다고 NHK는 전했다.

이시카와현에서는 최대 진도 7의 흔들림도 감지됐다.

일본 기상청의 지진 등급인 진도는 절대 강도를

의미하는 규모와는 달리, 지진이 일어났을 때 해당 지역에 있는 사람의 느낌이나 주변 물체 등의 흔들림 정도를 수치로 나타낸 상대적 개념이다.

진도는 사람이 흔들림을 감지하지 못하고 지진계에만 기록되는 '0'부터 서 있기가 불가능한 '7'까지 10단계로 나뉜다.

진도 7의 흔들림은 2018년 9월 홋카이도에서 발생한 지진 이후 처음이라고 NHK는 전했다.

이번 지진은 일본 남쪽 도쿄의 고층 빌딩 안에서 흔들림이 느껴질 정도였다. 일본 정부는 이번 지진 발생 후 관측 위기관리 센터에 대책실을 설치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피해자 구조 등 재해응급 대책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지시했다.

/연합뉴스

광주 관문 '송정역' 6월엔 빛으로 대변신

미디어아트 창의벨트 5권역 사업 추진...역동성·따뜻함 등 전달

광주송정역이 디지털 이미지를 구현한 광주 대표 관문으로 새롭게 태어난다.

광주시는 "송정역 일원에서 '미디어아트 창의벨트 5권역' 조성사업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광주시는 지난해 10월 사업자 모집 공고를 내고 3개 업체의 제안서 평가를 통해 ㈜이지워드 공동 수급사를 최종 사업자로 선정했다.

광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벨트 조성사업의 하나로 진행 중인 광주송정역 미디어아트 조성 사업은 총사업비 22억 규모이며, 오는 6월 준공 예정이다.

'아트 정션'(Art Junction·예술 교차로)을 주제로 사람, 예술, 문화가 교차하고 번영하는 광주의 역동적 융합을 미디어 아트에 담을 계획이라고 광주시는 설명했다.

광주시는 광주교통공사와 함께 사업수행 협의체를 구성해 지하철 송정역에서도 미디어아트를 체험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상할 방침이다.

광주시는 2019년부터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벨트 조성사업을 추진해 2022년 옛 전남도청 일원(1권역), 금남로 일대(2권역)에 시설물을 준공했다. 지난해에는 사직공원 빛의 숲, 양림동 일원 3~4권역 사업을 마쳤다.

광주시 관계자는 "일상의 이야기, 일상의 익숙한 공간을 미디어아트라는 디지털로 구현해 시민의 관심을 유발하고 매력적 문화공간으로 재창조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광주송정역을 특별한 기억의 공간으로 창조하고 광주지역 관문으로서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전력질주

지속가능한 전력산업의 미래를 위해 질주하겠습니다.

KPX 전력거래소 KOREA POWER EXCHANGE